

당신의 마지막 함박웃음을 기리며

최명자·안나
반포성당



그래요! 당신은 웃음을 남기고 내결을 떠나갔습니다.

1993년 12월 당신은 말기 직장암으로 수술을 받았지요. 그리고 3년의 투병생활. 눈물도 많이 흘렸고 마음도 무척 아팠습니다. 천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려도 보았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원망도 많이 하였습니다. ‘너무 사랑하셔서일까? 그래서 빨리 당신 곁으로 데려가신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곳에 남은 나와 로즈마리. 당신은 그랬지요. “남은 사람은 다 살게 마련이라고.” 하지만 당신을 떠나보내고 나는 눈물에 젖어 있습니다. 눈물에 젖어 있는 나를 두고 당신은 함박웃음을 짓고 아주 편안한 얼굴로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 기도실에서 당신이 떠나기 며칠 전부터 나는 당신을 편안하게 주님께 데려가시라고 성모님께 매달리며 기도 드렸습니다.

말기 암 후유증으로 복수가 차서 배는 많이 부어 올랐고 한쪽 다리는 다른 쪽의 두 배가 되어 고통스러워하는 당신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모님 당신이 무척 사랑하시는 남편을 고통 없이 잠들듯이 데려가 주세요’. 성모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당신이 가고 난 후에도 나는 정말 어리둥절합니다. 왜 그렇게 함박웃음을 지었을까요? 당신이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날 두 번의 웃음은 천사들이 당신 앞에 보였기 때문 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신 걸까요?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도 좋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웃고 떠나갔습니까? 먼저 가버린 당신이 밋지만 그나마 당신의 웃음으로 위안을 삼으려합니다.

이제 11월이면 당신이 떠나 간지 10년이 됩니다. 지나온 10년의 생활. 처음에는 삶의 의욕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웃음이 있었기에 슬퍼하기 보다는 주님 곁으로 간 당신의 영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편안하게 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당 선종봉사회 봉사자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선종하신 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연도를 바치면서,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럴 때면 웃음이라는 선물을 주고 간 당신이 미우면서도 그리웠습니다.

몇 년 동안 선종봉사회의 봉사자로 장지를 다니면서 눈물에 젖은 내 삶을 당신의 마지막 웃음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있었기에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사별가족이 아닌 봉사자로서의 여유도, 그리고 주님 곁에서 지켜보는 당신의 흡족한 미소와 웃음을 하늘을 쳐다보며 그려봅니다.

또 지금은 본당에 가정호스피스인 데레사회가 생기어 주위의 병들고 힘든 분들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 봉사자로서의 삶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나 또한 주님 곁으로 가는 날까지 병들어 지친 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호스피스 봉사의 소중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과 성모님께 간구해 봅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